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제35과 성도의 성품을 알아보는 저울 십계명

[계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품은 사람의 성질의 품질이다. 우리는 물건을 평가할 때 품질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한다. 것처럼 사람의 성질이 좋고 나쁜 것을 품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그 성질 한번 고약하네.”라는 표현을 한다. 혹은 “성질 더럽다”라고도 한다. 이런 표현들은 성품이 나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들이다. 성품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감정이 생활에 나타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성도들의 성질은 어떤 품질이어야 하며 그런 품질의 성질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성도들은 감정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오늘의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가르친다. 성경이 이 문제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살펴보자.

1. 십계명은 성품을 알아보는 저울이다.

[마22:36-40]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있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께서 새롭게 주신 새 계명이 아니라 예부터 있는 계명이다.

[신6:4-9]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레19: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께서 이 두 계명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간단한 표현이지만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것을 더 간단하게 표현했다.

[롬13:8-10]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은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 계명이 다 들었다고 분명히 가르친다. 이웃 사랑하는 것은 십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모든 내용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여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울은 이웃 사랑하는데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었다(다 들었느니라)고 가르친 것이지, 이웃을 사랑하면 계명을 안 지켜도 계명이 완성된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바울이 이곳에서 지적하는 것은 십계명의 조문들이다. “간음하지 말라(7계명), 살인하지 말라(6계명), 도적질하지 말라(8계명), 탐내지 말라(10계명)”는 것이 다 십계명의 내용들이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라고 했는데, 이 네 계명 외에 여섯 계명이 더 있다. 그럴지라도 이 모든 계명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고 가르친 것이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구체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것은 한 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최소한도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를 나타낸다는 말씀인 것이다.

[요일4:20,21]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21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성품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여부를 알아보는 저울이 되는 것이다. 그의 일상의 삶을 십계명으로 재어보면 그가 사랑의 성품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성도의 모든 감정적 표현은 십계명의 정신이어야 한다.

2.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은 용서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사랑을 정(情)으로 생각한다. 정은 사랑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에 정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요일4: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엡4:32]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의 이 말씀은 사랑이 나타나는 상태를 가르친 말씀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실마리를 푼다.

맹자(孟子)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인지단(仁之端) 이라고 했다. 즉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진 것의 시작이라는 말이다. 어질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에베소서의 말씀과 통하는 말이다. 불쌍히 여길 때 용서할 마음도 생긴다. 또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며 그의 꾀계에 빠진 마음이다.

[고후2:10,11]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뉘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3. 참된 성도는 십계명의 내용이 성질이 된 사람이다.

[롬7:4-8]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5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지니라 7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폐했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던 데서 벗어나 율법의 내용이 그의 삶이 되어버린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문자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 데서 이제는 율법의 내용이 자연적으로 생리적으로 지켜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의문(義文)의 묵은 것으로 하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한 것이다. 의문은 문자에 매여 지키는 것을 뜻한다. 그런 문자가 없었으면 그 문자가 가르치는 내용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제 그가 그런 문자가 없어도 그 문자가 가르치는 정신이 그의 정신이 된 영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내용이 지켜지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런 사람에게 율법의 문자는 의미가 없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갈5: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롬8:1,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생명이 그를 주장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그를 주관할 수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생명이 주장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생명의 법이 그의 성질이 된 사람이다.

[갈5: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주장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이다. 곧 성령의 열매이다. 이것을 맺지 못하게 하는 법은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맺게 하는 열매이다. 이것이 성도의 품성의 열매이다.

열매는 “칼포스(καρπός)”인데 단수(單數)이다.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열매를 표현할 때는 복수를 쓴다. 그러나 여기는 단수이다. 그

러므로 아홉 가지가 아홉 가지 열매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한 열매의 아홉 가지 성질이나 맛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직 한 열매이다. 그 열매의 이름은 성령의 열매이다. 성령의 열매는 이런 아홉 가지 성질을 한 열매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중에 한 두 성질이 이루어졌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열매는 한 두 성질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안에 언제나 이런 아홉 가지 성질이 들어 있다.

이 열매의 내용을 잘 보면 모두가 감정적인 내용들이다. 성령께서 성도의 감정을 예수님의 감정처럼 나타나도록 주장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의 성질이기 때문이다.

[계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였다. 예수 믿음 없이도 나타난 모양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노력의 결과이지 생명의 결과가 아니다.

[마19:16-22]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9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2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22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성질이 아니고 인간적 노력의 모습이다. 그것이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그 부(富)를 스스로 누리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가 의문으로 계명을 지켰으나 영으로 지킨 사람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계명의 내용이 그의 성품이 된 것이 아니라, 문자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지킨 것이다. 그 사회가 그것을 장려하기 때문이다.

4. 바울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고전7:19] 할례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유대인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할례는 이방인들이 받아도 안 받아도 상관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은 성질이 되었기 때문에 지켜지게 되는 것이다. 게(蟹)에게 아무리 옆걸음을 하지 말라고 해도 불가능하다. 옆으로 걷는 것이 게의 생리이다. 것처럼 참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이 성질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게 해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되었으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아프고 병이 나게 되어 있다. 생태적(生態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나 바울에게는 그것이 바로 생태적인 것이 된 것이다. 습관적인 것과는 다르다. 생태가 아니라도 반복해서 연습하면 습관이 되어 그런 버릇을 자연스럽게 한다. 그러나 생태적인 것은 반복 연습을 하지 않아도 하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먹을 것을 먹는 것과 같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한다.

그런 것을 생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눅4:16]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것은 예수님의 규례였다. 규례는 “에도(εθος)”인데 습관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의 생태적인 성질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말이 바울의 생활에도 적용되었다.

[행17:2]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회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어느 마을에 가더라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것이 자기의 규례였다. 그의 생활의 생태가 되어 있는 모습이다. 성도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고후13:7,8]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8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바울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런 것을 성품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인 곧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의 성품이 된 사람이다. 그가 성도인가 아닌가를 달아보는 것은 그의 삶에 십계명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여부로 분별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사는 것이다.

[요일5:1-5]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계명 지키는 여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드러내는 것이다.

5.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근본적으로는 다르다.

[고전13: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이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닌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보다 더한 사랑의 행위가 있을까? 그러나 사랑이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근본적인 사랑은 예수의 생명이며, 이 생명을 나누어주려는 것이 성경의 사랑의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요일3:14]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십계명은 바로 이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생활에 나타내는 최소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얻은 생명은 바로 사랑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자유스러운 것은 그것이 생명의 성질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6. 하나님의 계명은 자유를 준다.

하나님의 계명이 성질이 된 사람에게 계명을 준행하는 것은 자유이다. 그것을 준행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아프고 부자연스럽다.

[약2:10-13]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2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즉 진리의 도리라는 말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의 자유의 생태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뜻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이 그에게 아주 자유스럽고 편한 것이 된 여부가 그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7. 십계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다.

십계명의 구성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활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도록 되어 있다.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성부 하나님을 드러낸다.

[출20:1-7]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7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명령들은 경배 받으실 하나님을 계시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경배 받으실 분이지만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경배 받으실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마4: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넷째 계명은 성자 예수님을 드러낸다.

[출20:8-11]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 제 칠 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 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나는 날이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창조주께서는 피조물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행된다.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그 안에서 만나게 하는 예수님을 드러낸다.

[마1: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고후5:19]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만나시고 화평하게 하신다. 안식일은 화평의 날이다. 이 날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사귀고 기뻐한다.

“사단은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힘썼으며 안식일을 왜곡시키려고 활동하였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기 때문이다.”(소망283)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창조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가리킨다. ...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 날은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 할 것이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시기에 능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증거로 창조 사업을 가리킨다.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 준다. 그리고 천연계의 모든 사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는 그분의 초청을 반복하고 있다.”(소망 288)

5계명에서 10계명은 성령을 드러낸다.

[출20:12-17]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13 살인하지 말지니라 14 간음하지 말지니라 15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상 여섯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인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곧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롬5:5]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생명으로 이끌며 생활하게 된다.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를 맺는다.

[마22:36-40]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십계명을 두 가지로 분명히 정리해 주셨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것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계명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명이 지켜지는 여부가 그의 생명의 성질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이다.

[요일4:16-21]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7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찌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21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십계명은 이처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생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구성된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런 의미를 깨달으면 십계명이 얼마나 기이하고 넓고 깊은 지를 조금은 깨닫게 될 것이다.

[시119:18]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119:96]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우리는 이렇게 끝없이 넓은 십계명의 비밀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계시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경배하며 사랑고하고 이웃을 자신 같이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계명의 저울로 달아보면 계명이 생태가 되었는지 스스로 시험할 수 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속히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도록 자기를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시키도록 은혜를 구하자.